

	<b>광복회</b>	<b>보도자료</b>	<b>민족정기 선양 통일조국 축성 자존품위 제고</b>
	<b>담당부서</b> (담당자)	<b>대외협력국</b>	(부장 김재영) tel 02-780-0816, fax 02-782-5677
	<b>이메일</b>	<b>gwangbok@gwangbok.kr</b>	

\* 보도시점: 대한민국 106년 4월 17일(수) 배포 즉시

**“독도 해역에 함대를 배치,  
우리 영토 수호의지 보여라”**  
**광복회와 33개 독립운동단체연합, 일본규탄 성명  
19일(금) 오후 4시 구 일본대사관 앞 규탄대회 예고**

□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연합 33개 단체는 일본 정부가 외교정책 보고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공식화하고 일제강점기와 2차대전 전쟁범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 집회는 19일 오후4시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열린다. (중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앞 인도)

□ 광복회는 이날 성명에서 “2차 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지나고 있는 이 때, 일본은 당시 무단 점유하고 있던 독도를 아직도 자기 땅으로 주장하며 제국주의적 사고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면서 “일본정부가 그동안 외교부 홈페이지나 올려놓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이제는 각료회의 보고를 통해 노골적으로 제국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 광복회는 “일본 지도부가 이런 사고에 머물고 있는 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면서 “한국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틈 타 나온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광복회는 독립운동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 함대 배치해 운용하라”**  
**광복회 독립운동단체연합 일본 규탄 성명**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연합 34개 독립운동 단체는 일본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일제강점기와 2차 대전의 전쟁범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독도를 일본땅'

이라고 공식화, 제국주의적 망동을 보인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반복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대한민국 정부를 뒤통수 친 일본의 야비한 행보를 자행한 일본 정부를 또한 강력히 규탄한다.

2차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지나고 있는 이 때, 일본 정부가 당시 무단 점유하고 있던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며 아직도 제국주의적 사고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외교부 홈페이지나 올려놓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이제는 각료회의 보고를 통해 노골적으로 제국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일본이 아직도 일제 강점기와 2차대전 전범 국가로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더욱이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을 ‘파트너’ 운운하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낸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은 행태로, 우리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공동 해상훈련을 하면서 해상자위대 군함에 일본국기도 아닌 2차대전 전쟁범죄 상징기인 욱일승천기를 내걸고 훈련에 참여했다.

우리 국방부도 국군정신전력 교재를 출판하면서 우리 영토에서 독도를 빼고 출판한 전력, 전범기인 욱일기 게양을 묵인하며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아무 의식 없이 행하는 태도에서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뉴라이트와 친일세력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본 극우의 ‘2중대’가 되어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워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지식인들의 반성도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일본 기시다 내각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반역사적 반국제법적 내용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수정하라.

둘, 일본 정부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구실로 자국 함대에 내 건, 독일의 나치 깃발과 동일한 일본의 전범기 욱일승천기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셋,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일제강점기와 2차대전시의 일본의 전쟁범죄 죄상을 포함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전 세계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낱알이 알리며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넷,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복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즉각 독도 우리 해역에 함정을 파견해, 독도 수호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길 강력 촉구한다.

2024년(대한민국 106년) 4월 17일

### 독립운동단체연합

광복회, 3.1운동기념사업회, 강원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김종철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백산지청천기념사업회, 송와박영관선생기념사업회, 승의사보존사업회, 신간회기념사업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오오득선생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이리동척사건기념사업회,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청사조성환선생기념사업회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춘천의병마을,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흥사단, 조선어학회, 한국독립동지회

(끝)

※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